

격구희(擊毬戲)와 구정(毬庭)의 역사적 고찰

- 고려와 조선조 역대 왕을 중심으로 -

최우영* · 윤영환**

*강원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강원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우리의 전통놀이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단체로 하는 운동 놀이는 그리 많지 않다. 격구희(擊毬戲)는 고려와 조선시대 궁궐과 민간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즐기던 전통 운동놀이로, 이 격구놀이를 하던 공간이 구정(毬庭)이다. 격구에는 마상격구(馬上擊毬), 지상격구(地上擊毬), 포구락(拋毬樂) 등의 놀이 형태가 있는데, 격구놀이 형태와 장소에 따라 크고 작은 공간의 구정에서 여러 격구희가 행해졌다. 이 격구는 고려시대에 성행하면서 조선 중기까지 계속 전승되었다. 특히 고려 말에는 5월 단오에 야외 구정에서 대규모 관중이 참여한 가운데 집단 축제의 형태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무과시험 과목으로 채택되어 무관들이 필수적으로 연마하는 무예이자 놀이 형태로 발전했다. 그런데 조선중기 이후 총포의 대두로 인해 말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격구 역시 점차 약화되었는데 격구놀이 중 마상격구는 조선 효종 이후 거의 소멸되고 말았다. 한편 마상격구와 함께 전승되던 지상격구가 민간에 주로 전승되면서 장치기의 형태로 정착되어, 현재 전국 여러 지역에서 집단 민속놀이로 전해지고 있다. 고려와 조선조에 왕과 귀족 중심으로 널리 성행했던 격구놀이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에 많이 남아있다. 특히 왕을 중심으로 궁 내·외에서 행해졌던 기록이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에 자주 등장한다. 이 문헌들에는 역대 왕들이 격구를 즐긴 행태와 장소가 기술되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헌적 기록을 근거로 고려조와 조선조에 격구를 즐긴 역대 왕들의 격구희 행태와 그 공간적 장소성 등을 구명하여 격구놀이가 차지했던 역사·문화적 가치와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연구범위는 격구가 성행했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하였고, 고려조와 조선조의 군주(왕) 중 격구놀이 행위를 한 왕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고려조와 조선조의 왕조실록인 『고려사절요』와 『조선왕조실록』을 문헌적 사료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였

고, 일부 고지도와 기타 일반 문헌을 추가하였다. 기본자료(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에서 각 왕조별 역대 군주들의 격구놀이 행위 및 행태, 장소성 등의 역사적 사실을 추출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종합·분류하였다.

이 사료적 분류자료를 근거로 하여 세부 분석 과정을 거친 다음, 군주들의 격구놀이 행태를 직접참여 또는 참관 등으로 구분한 후, 격구희가 행해진 장소를 궁내, 이궁, 궐밖 기타 등으로 세분하고, 그 장소 및 위치를 추적하였다. 그리고 각 왕조별, 군주별 격구 행태의 참여 및 참관 횟수를 비교·분석하였다.

격구놀이 유형은 일부 구분되는 것만 적시하고 기타 직접 적시되지 않는 것은 구장규모에 따라 유추적으로 추정하였다.

III. 격구의 유래와 유형

격구의 유래는 일찍이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격구가 국내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중국 당나라 때에 현종이 말을 타고 격구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통일신라 최치원이 당나라에 머물러 있을 때에 격구가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今村綱, 1934). 국내의 격구는 중국의 당나라에서 전승되었다는 견해가 유력하나 현재, 격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7년(4월조, 11월조)의 기록을 보면, 당시 격구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자 격구의 유래를 중국 고대 황제 때에 처음 시작하여 한나라 축국과 당나라의 격환(擊丸)을 거쳐 송·원시대까지 이어졌다고 정립해 놓고 있고, 또 11월조에, 격구 유희는 고려가 왕성한 때에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정동오(1986)는 격구가 신라시대 중국으로부터 들어왔고 고려 때 크게 성행하여 국가적인 큰 오락으로 되었다 라고 하고 있다. 고려조와 조선조에 역대왕들이 군신들과 격구를 즐긴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고, 귀조가회의 등의 민속놀이로 정착되어 왔다.

격구의 종류에는 마상격구(馬上擊毬), 지상격구(地上擊毬), 그리고 지상격구에서 파생된 포구락(拋毬樂) 등 3가지가 있다. 말을 타고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포구락은 궁중무용화된 형태이다. 마상격구는 기마격구(騎馬擊毬)라고도 한다. 이것은 무관들이 구장에서 말을 타고 장시로 공을 쳐서 구문에

들어보내는 놀이이다. 주로 기마술의 습득이나 기마병의 훈련 용으로 쓰였다. 일반적으로 격구라고 하면 마상격구를 지칭한다. 격구놀이 중에서 가장 흥미 있고, 격렬하며,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예부터 대궐을 중심으로 귀족사회에서 전승되었으며, 특히 무관사이에 행해진 놀이이자 무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상격구는 격구유형 중 가장 넓은 공간의 구정이 필요하다. 지상격구는 지상에서 도보로 행하는 격구로, 보행격구(步行擊毬)라고도 한다. 이것은 마당 곳곳에 구멍을 파놓고 걸어 다니면서 공을 쳐서 구멍에 들어보내는 방식이다. 주로 궁궐의 내정이나 귀족의 사저(私邸)에서 왕과 귀족들이 즐겼다. 기마격구가 무관들 위주로 한 반면에, 지상격구는 궁중이나 민간에서 즐겼다. 포구락(抛毬樂)은 지상격구에서 파생되어 춤으로 정형화된 것이다. 주로 궁중에서 춤과 놀이의 형태로 기녀들에 의해 전승되었다. 이것은 당나라 때에 성행하던 것이 송나라에 전래되면서 고려 문종 때에 국내에 전래되어 궁중에서 당악정재(唐樂呈才)의 형태로 전승되었다(임동권과 정형호, 1997).

이들 격구놀이가 행해진 공간을 격구장, 격구정, 구장, 구정 등으로 불렀으며, 구정의 규모는 격구놀이 유형에 따라 크기가 달랐으며 마상격구가 가장 큰 면적의 공간에서 행해졌다.

IV. 결과 및 고찰

1. 고려시대의 격구회(擊毬戲)와 구정

1) 역대 왕들의 격구놀이 행태

고려사절요 예종 5년(1110)에 제16대 예종이 궐내 중광전 남루에서 격구를 참관한 기록이 처음 보인 이후로 역대 왕들이 격구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참관한 기록들이 조선조 인조 때까지 나타난다.

격구놀이에 직접 자주 참여한 왕은 모두 3명으로 의종(3회), 충혜왕(2회), 우왕(1회) 등의 순이었고, 격구를 자주 참관한 왕은 의종(8회), 공민왕(4회), 충혜왕(3회) 등의 순이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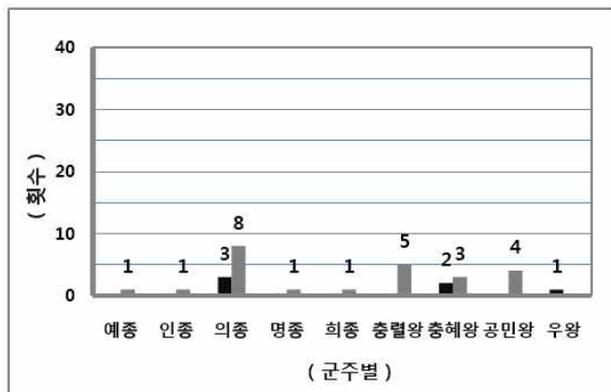


그림 1. 고려조 역대왕의 격구놀이 행태 분석도
 범례: ■ 격구참여, ■ 격구관람

조). 의종이 격구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참관도 제일 많은 왕으로 나타났다. 의종의 격구에 대한 애착은 고려사절요 의종 원년(1147) 5월조에 잘 나타나있다. “왕이 복원(수창궁)에 나와 놀며 좌우 사람에게 이르기를, 나의 공치는 기술을 다시 시험하지 못하리다. 하고는 조금 있다가 공을 치니 이에 따를 자가 없었다.”한 바와 같이 격구를 매우 즐긴 왕이다.

2) 격구회가 행해진 구정

격구는 본궐내에서부터 이궁 그리고 기타 궁궐 밖까지 여러 장소에서 행해졌다. 궐내 격구놀이 장소로는 중광전이 있고, 2회가 열렸다. 수창궁(4회), 장원정(5회), 수녕궁(5회), 연복정(1회) 등의 이궁에서는 15회가 열렸으며, 장원정과 수녕궁이 각각 5회로 이용횟수가 가장 많았다(그림 2 참조). 기타 장소로는 영봉루, 지화재, 시전, 산대암, 시가의 누, 봉선사 송강, 고라리, 송인문 밖, 궁문 동쪽 누각, 평양 부벽루 등이 있고, 이용횟수는 각각 1회씩 총 10회였다. 그리고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 미상이 3회로 나타났다. 멀리 평양 부벽루¹⁾에서도 우왕(1388)이 격구놀이를 하였다. 의종²⁾ 때 이궁인 수창궁 복원과 장원정 서루에서는 행해진 격구는 마상격구였다.

2. 조선시대의 격구회(擊毬戲)와 구정

1) 역대 왕들의 격구놀이 행태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성계를 비롯하여 모두 9명의 왕들이 격구회를 즐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이양하고 은거한 함흥 잠저궁(蠶蠹宮)³⁾에서 동쪽으로 2리 떨어진 바닷가에 태조가 어릴 적 격구하던 곳이 있는데, 조선 현종 15년(1674)에 문신 남구만(南九萬)이 이곳에 격구정(擊毬亭)⁴⁾을 세웠다.

조선건국 이후 태조 이성계는 재위 1년과 2년 사이에 본인이 등극했던 수창궁(3회)과 미상의 장소(2회)에서 5회의 격구회를 열었고, 모두 직접 참여하였다. 한양천도 후에는 재위 4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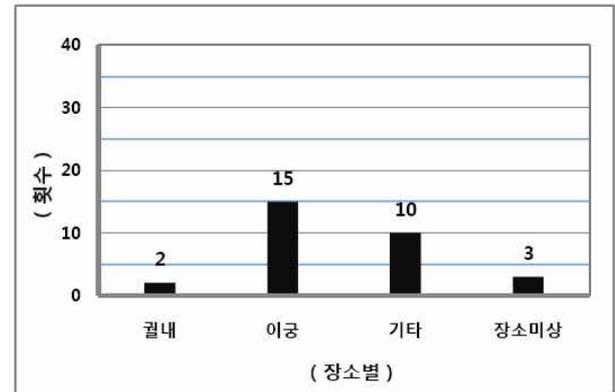


그림 2. 고려조의 격구놀이 장소 분석도

7년에 경복궁에서 열었고, 직접 참여와 참관을 각각 1회씩 행하였다. 제2대 정종도 경복궁(2회), 수창궁(2회), 미상의 장소(1회)에서 격구회를 열었고, 모두 직접 참여하였다. 제3대 태종은 조선 역대 왕 중 격구를 가장 많이 즐긴 왕으로서 재위 4년부터 17년 사이에 38회의 격구회를 열었다. 이 중 30회는 직접 참여하였고, 나머지 8회는 참관만 하였다. 제4대 세종도 27회 중 11회는 직접 격구놀이에 참여하였고, 16회는 참관만하여 태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격구를 많이 즐긴 왕이다. 제 9대 성종은 16회 중 1회만 직접 격구에 참여하고, 15회는 참관만 하였다. 이밖에 단종(1회), 중종(2회), 인조(1회) 등이 격구를 참관한 기록이 보인다. 조선중기 인조 이후로는 격구회 기록이 실록에서 보이지 않는다(그림 3 참조).

2) 격구회가 행해진 구정

조선시대에 격구가 행해진 구정은 개성의 수창궁(5회)과 인덕궁(3회), 한양의 경복궁(22회)과 창덕궁(25회), 돈의문(서대문) 밖 서북쪽에 있는 모화관⁵⁾(33회)과 그 북쪽에 있는 반송정⁶⁾(1회)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위치를 알 수 없는 미상의 장소도 17곳이나 되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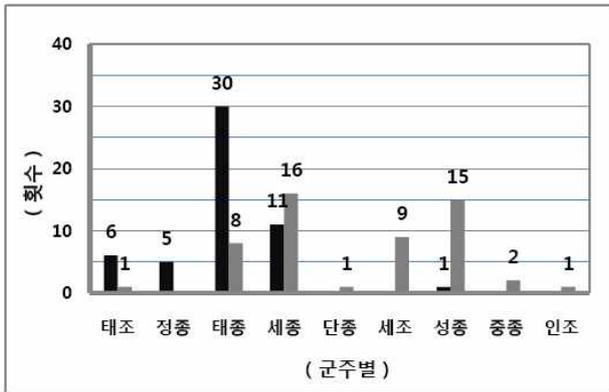


그림 3. 조선조 역대왕의 격구놀이 행태 분석도
 범례: ■ 격구참여, ■ 격구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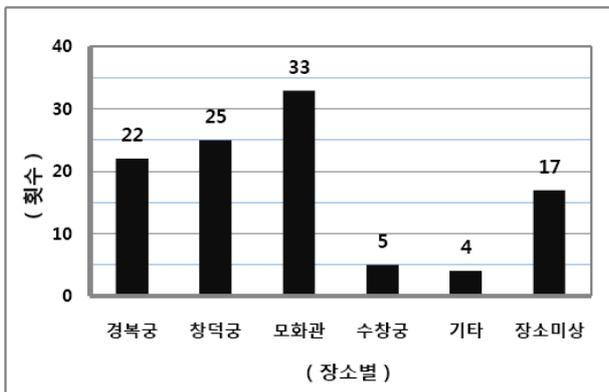


그림 4. 조선조 역대왕의 격구놀이 장소 분석도

조선시대에 격구가 개성에서 개최된 때는 태조가 개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이고, 정종이 한양에서 다시 개경으로 천도를 단행한 이후이며, 태종이 개성으로 이어(移御)한 시기이다. 서대문 밖 모화루(모화관)에서는 세종 때를 시작으로 하여 단종, 세조, 성종, 중종, 인조 때에 이르기까지 총 33회의 격구가 열렸는데 이 중 성종 때에만 열렸던 격구 횟수가 16회에 달한다(그림 4 참조).

경복궁에서는 사정전 앞뜰에서 7회, 경희루 서편에서 1회 그리고 공간구분이 추상적인 내정과 내전, 신궁에서 14회 등 총 22회가 열렸다. 이들 궐내 격구는 지상격구나 포구락 형태로 추측되며, 궐외의 모화루, 반송정 등은 마상격구가 행해졌다고 본다.

창덕궁에서는 총 25회가 행해졌는데 광연루(廣延樓)⁷⁾에서 그 중 18회를 열었고, 이는 모두 태종 때에 행한 것이다. 태조 이성계가 태상왕으로 물러났을 태상전과 궁 동북 모퉁이 쪽에 있던 해운정에서도 각각 2회씩 열렸다. 장소미상인 17곳은 궐내·외 구분과 위치확인이 안 되는 곳이다.

V. 결론

격구는 고려시대 이후 궁궐과 민간에서 널리 유행하며 전승되던 운동놀이였지만 조선중기 이후에는 쇠락해져 현재는 일부 유형만 겨우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격구놀이가 공간인 구정은 고려조와 조선조의 격구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상징적 가치와 역사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고려와 조선조의 역대 왕들이 주체가 되어 행해진 격구놀이의 행태 및 장소성에 초점을 맞춰 역사적으로 접근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고려시대 격구를 즐긴 왕들은 예종을 비롯하여 모두 9명이다. 예종이 격구한 것이 처음 기록이며, 이들 군주 중 의종이 경기 참여와 참관 등 격구를 가장 많이 즐긴 왕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충혜왕, 충렬왕, 공민왕, 우왕 순으로 나타났다.

격구가 행해진 장소로는 이궁으로 사용되었던 수창궁, 수녕궁, 장원정이 있고, 이궁에서의 이용횟수가 다른 곳보다 많았다. 수창궁 복원과 장원정 서루에는 마상격구를 위한 전용구정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를 비롯하여 모두 9명의 왕들이 격구회를 즐겼다. 태조는 어릴 때부터 격구를 즐겼고, 등극 후에도 격구회를 즐긴 왕이다. 태종은 역대 왕 중에서 격구놀이를 가장 많이 즐긴 왕으로 직접 참여한 횟수가 30회에 달한다. 태종 다음으로 격구를 많이 즐겼던 왕은 세종이다.

격구회는 조선 초기에 개성 수창궁, 인덕궁에서 행해지다가 한양 천도 후에는 궐내에서 행해졌다.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열렸고, 창덕궁에서는 태종 때만 24회가 개최되었다. 위의 장소에

서 행해진 격구의 형태는 비교적 크지 않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지상격구, 포구락으로 추측된다. 조선중기에 들어서는 궐 밖의 모화루가 마상격구를 행하는 구정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격구회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조선중기 제16대 인조 때까지 기록이 보이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조선중기 이후에는 쇠락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 주 1. 고구려때 평안도 평양 대동강 가에 세워진 누각으로 원래 영명루(永明樓)였는데 고려 예종 때 이안(李顔)에 의해 부벽루로 개명되었다.
- 주 2. 의종의 격구에 관한 기록은 동사강목 제 9상 의종 원년(1147)조에, “의종 1149년에 왕이 효용한 기병 18인을 뽑아 격구하게 하고 관람하였다. 이때부터 격구는 수장궁 북원에서 혹은 장원정의 서루에서 행하였는데 친히 임어하여 관람하였고, 관람하지 않은 달이 없었다.”고 하였다.
- 주 3.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48권 함흥부(咸興府)에 이성계의 잠저궁에 관한 기록이 전한다. 운전사(雲田社) 본부 동쪽 14리 지점에 있는데, 태조 잠저(鸞姐) 때의 옛날 집이 있다.
- 주 4. 약천집 제 28권 기(記) 함흥십경도기에 본궁에서 남쪽으로 10여 리를 가면 성천강(城川江)이 바다로 흘러들고 삼택(三澤)의 물이 또 돌아 흘러 석담(石潭)이 되었다. 산기슭이 움푹 들어가고 높이 솟았으며 그 정상은 깎여서 평지가 되었는데, 전해 오기를 태조대왕이 미천했을 때 격구(擊毬)하던 곳이라고 한다.

- 주 5. 돈의문(서대문) 밖 서북쪽에 있는데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신을 접견하는 곳이다. 1407년(태종7년) 송도에 있는 영빈관을 모방하여 서대문 밖에 건립하고 이름을 모화루라 하였다.
- 주 6.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한성부(漢城府)에 반송정(盤松亭)은 모화관(慕華館) 북쪽에 있다 하였다.
- 주 7.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권 경도 궁궐에, 태종 8년(1408)에 태조가 창덕궁 광연루(廣延樓) 아래 별전에서 승하였다 한 곳이다.

인용문헌

- 1. 孔俊元(2009) 五宮과 都城. 세계문예.
- 2. 郭亨基(1978) 麗朝 擊毬 發展相에 대한 小考.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今村鞆(1934) 朝鮮의 風俗資料-扇左·繩·打毬·毬. 조선총독부. 281.
- 4. 김창현(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261-266.
- 5. 민족문화추진회(1971) 靑邱圖 건. 민족문화추진회. 99.
- 6. 송기호(2009) 격구와 석전. 대한토목학회지 57(1): 97-101.
- 7. 임동권 정형호 외(1999) 한국의 馬 민속. 집문당. 207.
- 8. 임동권 정형호(1997) 韓國의 馬上武藝. 마사박물관. 270-271.
- 9. 田基培(1976) 擊毬 石戰 狩獵에 對한 研究 -朝鮮初期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한국역사연구회(2002)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 비평사. 29-43.
-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웅진출판사.